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8, pp.45-86
<https://doi.org/10.29212/mh.2026..138.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2

1811년 ‘홍경래 난’ 발발과 평안도 관군의 초기 대응¹⁾

박기훈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평안도 군사지휘체계와 유사시 대응체제 검토
 3. ‘홍경래 난’ 발발과 평안도 군현의 초기 대처
 4. 평안도 관군의 반격과 그 배경
 5. 맺음말

초 록 본고는 1811년 홍경래 난 발발 초기 관군이 반군을 신속히 진압하지 못한 원인을 민중사적 시각이 아니라 군사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반란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주도층의 성격에 주목해 온 데 비해, 본고는 평안도 군사지휘체계와 지역별 군현의 군사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초기 진압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조선후기 평안도는 외적 침입에 대비한 독진 중심의 분산적 방어체제를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외적의 침공처럼 사전에 긴장 징후가 포

1)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3S1A5B5A17089073)

착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나, 내부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봉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였다. 홍경래 난 초기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관군이 각개 격파된 것은 독진 체제 하에서 군현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이를 가산·곽산·정주·선천·철산·용천 등 각 군현의 사례를 비교하여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군사적 대응의 성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기 실패는 수령 개인의 무능보다는 군사지휘체계의 구조, 정보의 신뢰성 문제, 병력 동원의 제약, 대응세력의 존재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평안병영이 위치한 안주는 정보가 집중되는 지휘·정보 허브라는 구조적 이점을 바탕으로 반군의 과장된 격문과 유언비어를 배제하고, 신뢰 가능한 첩보를 통해 병력을 단계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 우위와 병력 동원 체계, 그리고 영변·구성 등 일부 군현의 수성 성공이 결합되면서, 중앙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평안도 관군은 홍경래 반군을 정주성으로 몰아넣으며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홍경래 난 초기 관군의 대응을 군사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관군의 무능’이라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조선후기 지방 군사체제의 작동 조건과 한계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주제어: 홍경래 난, 평안도 관군, 청북지역, 군사지휘체계, 독진체제, 진관체제, 첩보

원고투고일: 2026.1.11. 심사수정일 : 2026.2.10. 게재확정일: 2026.2.10.

1. 머리말

1811년 12월 18일 평안도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발발한 ‘홍경래 난’이 10여 일 만에 7개 군현을 빠르게 장악하는 동안, 평안도 관군은 즉각적인 진압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평안도 관군이 반격에 성공하자 반란군은 중앙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수성전에 돌입하였고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평안도 관군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군사지휘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812년 4월 19일 반군이 몇 개월간 농성하던 정주성을 관군이 함락시키면서 반란은 완전히 평정되었다. 조정에서는 논공행상이 진행되었는데 정주성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이들뿐만 아니라 절의를 지키다 순절한 가산군수 정시, 반군의 내응세력을 색출하고 수성에 성공한 안주목사 조종영과 영변부사 오연상, 구성부사 조은석, 신속하게 병력을 이끌고 도착한 숙천부사 이유수, 운산군수 한상목 등에게 포상을 내렸다.²⁾ 이를 통해 ‘홍경래 난’을 진압하는데 평안도 관군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홍경래 난이 진압된 이후 이루어진 조정의 논공행상에 대하여 정약용은 『牧民心書』 兵典 應變에서 조정에서 절의만 포상하고 허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고 ‘절의에는 힘이 없을지 모르나, 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실은 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³⁾ 그렇다면 홍경래 난 발발 당시 평안도 수령 가운데 미리 변

2) 『순조실록』 권16, 순조 12년 6월 9일.

3) 『牧民心書』 병전 응변.

란의 시초를 알아내고 대응에 나선 이들이 없었을까? 홍경래 반군에 맞선 수성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제까지 홍경래 난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반란의 배경, 반군의 주도층의 성격 등에 맞추어져 왔다. 19세기 초반 세도정치기에 일어난 ‘홍경래 난’이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는 그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민중 봉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를 진압하는 군사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져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홍경래 난이 ‘민란’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란을 빨리 진압하지 못한 관군에 대해 무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홍경래 난’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홍경래의 가계와 그의 인물에 대한 규명 및 사색당쟁과 부정부패, 서북인에 대한 조선왕조의 집권층의 푸대접을 결합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⁴⁾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반란을 주도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홍경래 난’에 참여한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평안도 농민의 역할을 강조하거나⁵⁾ 재지 중간층과 몰락양반이 함께 주도층을 형성했다고 보는 시각⁶⁾, 서북지역 신향층의 대두와 부민수탈에 대한 반발로 반군과 대응하거나 관군의 편을 들어 의병활동을 한 것

4) 小田省吾, 『辛未洪景來亂の研究』, 小田先生頌壽紀念會, 1934. 이외에도 논문으로는 玄相允, <洪景來傳>, 《東亞日報》1932년 7월; 小田省吾, 『洪景來亂の概略とその動機に就いて研究』, 『靑丘學叢』 8·11, 1932, 1933.

5)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난의 실패를 지도부의 정치의식 한계와 농민층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데에서 찾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홍희유,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과 그 성격」,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이조편)』, 과학원 출판사, 1963(열사람 출판사, 1989에 재수록); 고동환, 「1811-12년 평안도 농민전쟁」, 『한국사』 10, 한길사, 1994; 鶴園裕,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加層 -그 中層的 性格을 중심으로-」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上, 1981.

6) 鶴園裕,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加層 -그 中層的 性格을 중심으로-」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上, 1981.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⁷⁾

국가 차원의 평안도 지역 정치적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홍경래 난'을 바라보는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왔다.⁸⁾ 이러한 차별로 인해 배척당하는 '저항지식인'과 무력은 갖추었으나 경제력이나 신분이 사회 상층에 속하지 못한 '장사층'들이 1811년 '홍경래 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규명했다.⁹⁾ 최근에는 홍경래 난의 주도층이 사회적 상승을 통해 자리를 얻은 '경영형 부농'이나 낮은 신분층에서 등장한 '저항지식인'과 '장사층'이 아니라 청북지역의 소외된 지역 지배층과 지역 차별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실증한 연구도 제출되었다.¹⁰⁾

'홍경래 난'이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봉기군의 관점과 중앙에서 파견된 진압군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홍경래 반군이 12월 20일 안주와 영변 중 어디를 먼저 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분으로 공격 일자가 지체된 사건을 난의 기초를 일변시키는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¹¹⁾ 최근에는 홍경래 난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전투를 벌였던 정주성을 중심으로 관군의 공성작전과 홍경래군의 수성작전을 검토한 연구가 제출되었다.¹²⁾ 이상의 연구를 통해 홍경래 난의 전개와 군사적인 분기점

7) 고석규, 「서북지방 향촌지배세력의 변동」,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정석중, 「洪景來亂과 內應勢力」, 『嶺南史學』 1, 1985.

8) 이 연구에서는 사족의 평안도민에 대한 정치적 차별은 그 당시의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 주도적인 정치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준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9) 오수창, 「'홍경래 난'의 주도세력과 농민」,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10)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 난』, 푸른역사, 2020.

11) 정석중, 「洪景來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7, 1972; 이왕무, 「홍경래 난의 진압과정」, 『한국군사사』, 육군본부, 2012.

12) 강석화,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軍史』 124, 2022.

이 되는 사건, 그리고 관군의 초토전술과 반군의 청야전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홍경래 난’이 일어난 원인과 반란의 주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홍경래 반군이 봉기한 이후 파죽지세로 7개 군현을 점령했던 배경과 그 기세가 꺾이게 된 계기에 대하여 봉기군의 관점에서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평안도 관군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평안도 관군이 반군의 예봉을 꺾고 반격하는데 성공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평안도 각 군현별 군사적 대응에 주목하면서 어떠한 조치가 반군을 상대로 유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평안도 군사지휘체계와 유사시 대응체제 검토

본 장에서는 평안도 군사지휘체계가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형성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내란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평안도는 함경도와 함께 ‘양계(兩界)’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는 북방세력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접경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외적이 육로를 통해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관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평안도는 함경도에 비하면 접경지역이 길고 도성까지의 거리가 짧으면서 지형은 상대적으로 평탄했다. 그 결과 조선은 평안도에 소규모 외적이 변경을 침략하는 것에 대비한 진보를 곳곳에 운영하는 동시에 대규모 외적이 침공할 때 내지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어 거점을 마련하는 중층적인 방어체계를 운영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전기 평안도의 유사시 대응체계는 진관체제와 독진 운영이라는 상이한 지휘체계가 병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1466년(세조 12)에 완성된 진관체제는 행정조직인 읍을 군사조직인 진으로 편성하여 각 읍의 수령에게 군사지휘관의 임무도 겸하게 했다. 유사시 진관에 소속 읍의 군사를 나누어 정돈시킨 후 주장의 호령을 듣게 한 것이다.¹³⁾ 조선팔도가 모두 진관체제로 정비되는 가운데 평안도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진과 접경하고 있는 강변 6읍(삭주·창성·벽동·이산·위원·강계)은 유사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진으로 운영하고 북방민족과 접경하지 않고 있던 의주진관과 구성진관, 영변진관, 안주진관을 진관체제로 관리했다.

독진은 소규모의 침략에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평안병사를 평시에는 후방인 영변에 주둔하다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결빙기에는 창주 행영으로 나아가게 했고 평안우후도 이산 행영에 배치시켰다. 그 결과 독진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많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 평안병사와 우후가 인근 군현의 병력도 지휘하면서 자칫하면 독진 홀로 고립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했다. 이러한 방어체제는 작은 수십·수백 단위의 여진의 침략과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으나 규모가 큰 수천 단위의 대규모 여진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17세기 초반 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여진세력이 급성장하여 서북지역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외적이 압록강 변경을 약탈하는 것을 넘어서 의주대로를 통해 청천강 이북 내지까지 침공하

13) 서태원,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 『사학연구』 63, 2001, 42~47쪽.

기 시작했다.¹⁴⁾ 청천강 이북 의주대로에 위치한 제진의 지휘관이 첨절제사 명에 따라 거진에 모이기 전에 후금군은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청천강 이북 연해 지역에 산성을 쌓아 백성들의 입보처를 마련하여 독진처럼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평안병사는 더 이상 행영으로 나아가지 않고 병영도 영변에서 청천강 이남 안주로 이설했다.¹⁵⁾

조정에서는 행영 폐지와 평안병영 안주 이설로 유사시에 청천강 이북 군현을 평안병사가 직접 지휘하기 어려워지자 대신 의주부윤을 청북방어사에 임명했다.¹⁶⁾ 실제로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청군의 선발대는 2일 만에 압록강에서 안주까지 약 460리의 거리를 주파하고 그 뒤로 서로군을 셋으로 나누어 시차진군하는 전략으로 인해 평안병사는 청천강 이북 군현을 지휘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북방어사 역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백마산성을 지키기만 했다.¹⁷⁾ 빠른 기동력과 뛰어난 야전능력을 갖춘 청군이 시차를 두고 진군하자 청북방어사도 고립을 면치 못하고 대로와는 거리가 떨어진 산성만 지키면서 보급로도 위협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독진체제를 갖추면서 적군이 지나치지 못하도록 산성보다 읍성 위주의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병자호란에서 패전한 이후 청이 조선의 군비를 제한하면서 청사(淸使)가 오가는 의주대로 인근에 있는 평안도 군현에서는 성곽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수도 없었고

14) 1621년(광해군 13)에는 후금군이 하루 만에 의주에서 가산까지 들어왔다가 용천을 돌아서 철군하는데 진군한 거리가 2백여 리나 되었다(『광해군일기』 권172, 광해 13년 12월 18일 을유).

15)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75쪽.

16) 『비변사등록』 4책, 인조 12년 6월 25일.

17)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85~88·123~125쪽.

병력도 증원할 수 없었다.¹⁸⁾

대신 병자호란 이후 평안도는 유사시에 강계의 만포를 좌계원장으로 삼아 영변의 철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창성의 창주를 우계원장으로 삼아 광산의 능한산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평안도 계원장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독진으로 운영되던 변경지역을 포기하고 내지만이라도 지키겠다는 조선의 궁여지책이었다. 17세기 후반 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조선은 평안도 변경 방어체제를 재편했다. 1678년(숙종 4) 11월 4일 평안도계원장사목을 폐지하고 대신 평안도 지역에도 영장제를 실시하여 만포첨사와 창성부사를 강변좌·우영장으로 삼아 인근 군현·진보를 소속시켜 압록강변을 지키도록 했다.¹⁹⁾ 유사시 방어를 포기했던 강변 6읍을 다시 지키는 동시에 강변 좌·우영장제를 통해 독진이더라도 소속 진영 군현과 함께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반면에 청천강 이북 의주대로에 자리하고 있는 군현의 경우 진관체제에서 독진으로 바뀌었다. 유사시에 용천·철산의 군병을 모두 철수시켜 광산 영장에게 전속시키는 조치를 폐지하고 용천과 철산은 각각 자신의 지역을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주진과 속진의 관계가 역전되어 광산에서 관할하고 있던 구성을 독진으로 만들어 유사시에 청북지역 여러 갈래의 길이 합해지는 구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²⁰⁾ 이는 조선후기 평안도 방어체제가 청천강 이북 내륙의 교통·군사 거점을 각 군현이 독자적으로 사수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18) 병란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선은 청을 의식하면서 무비를 보충해나가는 정도에 머물러야 했다(『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8월 13일 병인).

19)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韓國文化』 34, 2004, 180쪽.

20)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27일 丙子.

하지만 각각의 군현이 독자적으로 사수할 수 있는 관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를 위해선 조선에 대한 청의 군사적인 제한이 풀려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관방시설을 정비할만한 요인이 필요했다. 때마침 명의 저항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중원지배가 안정화되면서 청이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제한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영고탑 회귀설이 유행하면서 적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평안도 지역에 관방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내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1710년(숙종 36) 강희제가 황당선을 막기 위해 방비를 철저히 하라는 칙서를 조선에 보내자 조정은 이를 기회 삼아 평안도 관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기 시작했다.²¹⁾

병자호란을 통해 산성 방어의 문제점을 인식한 조선은 읍성 개축에 힘썼다. 숙종 30년을 전후하여 대두된 도성수비론을 위해 도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직로상 읍성의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했다.²²⁾ 사행로를 벗어나 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성은 평안도에서 가장 먼저 읍성이 축조되었다. 구성은 순변사가 주차하는 곳으로 좌·우영장을 통제하는 요충지였다. 때문에 구성에 읍성을 쌓자는 의견이 1701년(숙종 27)에 제기되었고 받아들여져 1704년(숙종 30)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²³⁾

1710년(숙종 36) 황당선을 막기 위해 방비를 철저히 하라는 청 황제의 칙서를 받고 난 후에 조선은 청의 눈치를 보느라 정비하지 못했던 의주대로에 위치한 지역의 관방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1713년(숙종 39) 평안감사 민진원의 평양과 안주의

21)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9월 30일.

22) 노영구, 「조선 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점방어체계」, 『韓國文化』 34, 2004, 245~249쪽.

23)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2월 5일 계해;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 11월 15일.

성을 보수를 마쳤으니 요충지인 정주읍성도 보수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1714년(숙종 40)에 처음 공사를 시작해 1718년(숙종 44) 이전에 완성되었다.²⁴⁾ 이전까지는 유사시에 궤산과 정주가 능한 산성에 들어갔지만 정주성이 수축되면서 궤산과 정주도 유사시에 각각 능한산성·정주성을 지키게 되었다. 청천강 이북 의주대로에 위치한 군현들을 독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곽을 갖추게 된 것이다.

관방시설까지 완비된 이후 평안도 군사지휘체계는 1757년(영조 33)~1765년(영조 41)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輿地圖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선후기 평안도 진관체제와 조선전기 진관체제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의주대로에 위치한 청천강 이북의 군현이 대부분 독진이 바뀌었다. 의주진관으로 묶여있던 용천과 철산이 모두 독진이 되었고 구성진관에 속하던 선천과 궤산도 모두 독진이 되었다. 안주진관에 속하던 정주도 독진이 되었다. 그리고 독진이 된 의주대로 상 군현에는 모두 입보할 수 있는 읍성과 산성이 갖추어졌다.

24)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8월 27일; 『승정원일기』 506책, 숙종 44년 1월 20일 신사.

〈표 1〉 『여지도서』에 나타난 평안도 진관체제

主鎮							
平安道 觀察使 = 巡察使(종2품) * 평양				平安道 兵馬節度使(종2품) * 안주			
진관							
평양 진관	영변 진관	안주 진관	성천 진관	창성 진관 ²⁵⁾	강계 진관	가산 방수장	의주, 용천, 철산, 구성, 꾀산, 정주, 위원, 이산, 삭주, 벽동, 선천, 삼화, 영원
소속 군현							
중화, 함중, 순안, 강서, 용강, 증산	희천, 운산, 태천	속천, 영유	덕천, 개천, 자산, 순천, 상원, 양덕, 토성, 맹산, 삼등, 강동, 은산	삭주, 벽동		박천	

두 번째, 조선후기 들어와 행영이 사라지고 병영이 청천강 이남 안주로 이설되면서 유사시에 청북지역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어졌다. 조선전기에는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결빙기에 평안병사가 행영이 있는 창성으로 나아가 청북지역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행영이 사라지면서 유사시에 여러 독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사라졌다.

이를 보완해주는 제도가 방어사와 영장 파견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방관의 군사지휘에 대한 무능과 진관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해결 방안으로 속오군을 설치하고 영장을 파견하여 속오군을 지휘했으며, 중앙에서는 유사시에 지방군을 지휘하기 위해 중앙에서 방어사와 같은 군사지휘관을 파견했다.

25) 『여지도서』 창성부에서 창성 진관 소속 고을은 삭주·벽동이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삭주부와 벽동군에서 독진이라고 기록된 부분과 상호 모순된다. 강변 7읍이 독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계방어사와 창성 방어사가 의주를 제외한 7읍을 나누어 담당하는 독특한 형태 때문에 생겨난 서술상 모순으로 보인다(이철성, 「17세기 평안도 강변 7읍의 방어체제」, 『한국사학보』 13, 2002, 312쪽).

〈표 2〉 『속대전』, 『여지도서』에 나타난 평안도 진영장과 방어영

鎭營將				防禦營			
				兵馬防禦營		水軍防禦營	
				창성	강계	선천	삼화
前營	숙천(무 종3)	別前營	용천(무 정3)	삭주, 벽동	이산, 위원	용천, 은산, 곡산, 정주, 가산, 박천, 영변, 태천, 구성	함중, 증산, 영유, 순안, 숙천, 안주, 종화, 평양, 강서, 용강
左營	덕천(무 정4)	別左營	구성(무 종3)				
中營	중화(문무 종3)	別右營	가산(무 종4) ²⁶⁾				
右營	순천(문무 정4)	別後營	영변(문무 정3)				
後營	함중(무 종3)						

선조대 처음 시작된 영장제는 인조·효종대를 거치면서 지방군제로 자리잡게 된다. 평안도 지역 영장제는 다소 늦은 1677년(숙종 3)에 실시되었다.²⁷⁾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 따른 평안도 진영체제 및 설치된 방어영은 〈표 2〉와 같다. 평안도 진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청남지역에는 숙천·덕천·중화·순천·함중 5개 겸영장, 청북지역에는 용천·구성·가산·영변 4개의 겸영장을 두었다.²⁸⁾ 또한 병사가 내지에 있어 지휘하기 힘든 강변 6읍에 창성과 강계에 병마방어영을 설치해 유사시에 소속 읍과 진보가 방어사의 절제를 받도록 했다.²⁹⁾ 그리고 선천과 삼화에 청북수군방어영과 청남수군방어영을 설치하여 평안도 수군을 절제하도록 한 것이다.

위에 〈표 1, 2〉로 정리된 내용을 지도를 통해 보면 〈지도 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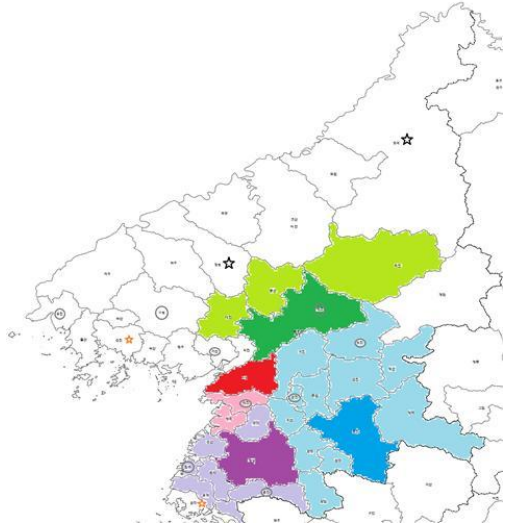
26) 『여지도서』에는 무반 6품으로 적혀있다. 하지만 군수라 불리고 수방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경국대전에 따라 종4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27) 『비변사등록』 34책, 숙종 4년 9월 9일.

28) 평안도 9개 진영장이 무엇을 중점에 두고 설치되었고 이후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29) 『비변사등록』 47책, 숙종 19년 7월 17일.

같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거진이며 옅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제진이다. 또한 검은색 별표는 병마방어영, 주황색 별표는 수군방어영이 설치된 곳이다. 별도의 표시가 없는 지역은 독진이다. 독진도 강변 6읍(삭주·창성·벽동·초산·위원·강계)과 의주대로에 위치한 청천강 이북 군현(의주·용천·철



〈지도 1〉 18세기 평안도 진관·진영·방어영 편제

산·선천·곽산·정주)의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강변 6읍의 경우 창성과 강계에 병마방어영이 설치되어 유사시에 인접 군현과 합동으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의주대로에 위치한 청천강 이북 군현의 경우 병마방어영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평안병사의 지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립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홍경래 난’에서 평안도 관군의 대응은 이러한 평안도 군사지휘체계의 작동 조건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다음 장에서는 이를 실제 사건 전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홍경래 난' 발발과 평안도 군현의 초기 대처

1811년 말 평안도는 100년 동안 최악의 가뭄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작황이 좋지 못했다.³⁰⁾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1811년 10월 청천강 이북 가산 다북동에는 반란을 모의하는 홍경래를 비롯한 무리(이하 반군)들이 모임을 가졌다.³¹⁾ 이들은 1812년 임신년에 무장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담긴 '임신기병(壬申起兵)' 4글자를 18자로 쪼개서 저잣거리에 소문을 퍼트렸다.³²⁾ 동시에 반란 세력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1811년 12월 14일 진시(7~9시)에 평양 대동관 정청 당가(正廳 唐家)³³⁾에서 시작된 방화사건이다.

목조건물이 주가 되는 조선시대에 취사나 난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자주 있었다. 보통의 경우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대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1804년 3월 평양성 대화재가 바로 그 사례였다. 1804년 3월 3일 진시(7~9시)에 민가에서 실화로 시작된 불은 남풍이 크게 불어 불꽃이 번져 5000호에 이르는 민가와 평안감사와 중군(中軍)이 근무하는 선화당과 중영, 각 공해와 창고까지 삼시

30) 김선주, 앞의 책, 138쪽.

31) 『진중일기』 1812년 1월 12일.

32) 『진중일기』 1811년 12월 18일.

한 선비가 관을 비뚜로 쓰니 一士橫冠 = 壬

귀신이 옷을 벗네 鬼神脫衣 = 申

열필에 한 자를 더하니 十疋加一尺 = 起

작은 언덕에 두 발이 있네 小丘有兩足 = 兵

33) 大同館 : 평양에서 명·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만들었던 객관
唐家 : 법전 안의 옥좌의 위에 만들어 다는 집의 모형.

간에 불탔다. 이때 순영 창고의 6천 7백 근의 화약이 화재가 번지는데 일조했다. 그 결과 한 시대를 번영하던 장소가 곧 상전벽해가 되었다고 표현할 만큼 큰 화재였다.³⁴⁾ 화재로 인한 피해에 힘쓴 결과 1년 만에 평양부 공해를 영건했지만 대규모 화재가 남긴 물리적·심리적 피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³⁵⁾

봉기를 계획하고 있던 이들은 행정과 군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안감사와 중군이 근무하고 있는 선화당과 중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관에 한밤중 불을 질러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에 소란을 일으키려 했다. 만약 1804년과 같이 대화재가 다시 발생한다면 모든 이목이 평양성 화재 복구에 집중되면서 반군의 활동이 봉기 전까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도화선과 화약통이 눈 녹은 물에 젖어서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화재가 발생했다. 계획대로 밤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면 1804년과 같이 대화재로 번지면서 선화당과 중영까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난 아침에 불이 나면서 대동관 이상으로 번지지 않아 반군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³⁶⁾

평안감사 이만수는 대동관 화재를 실화(失火)가 아닌 방화(放火)라고 보고 중앙에 보고하였으며 그날 수직한 이졸들을 엄히 조사했다.³⁷⁾ 대동관은 평안감사와 평안중군이 근무하는 선화당과 중영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번진다면 평안감영의 정상적인 행정·군사 기능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평양성 화

34) 1804년 평양성 화재가 크게 번진 이유 중 하나가 순영 창고의 화약이다(『순조실록』 권6, 순조 4년 3월 6일 을미; 『계산기정』 권4, 갑자년(1804, 순조 4) 3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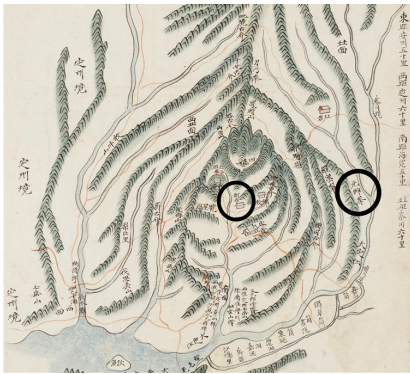
35)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6월 14일 병인.

36) 대동관사 정청 24칸, 동대청 20칸, 서대청 20칸이 모두 연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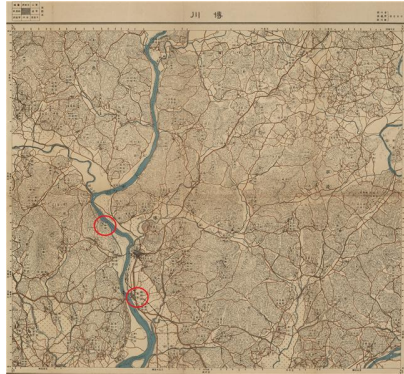
37) 불과 7년 전 대화재로 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서 취사나 난방을 할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던 대동관 정청 唐家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고의적인 방화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17일).

재가 크게 발생한다면 평안도의 모든 이목이 평양에 집중되면서 반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방화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방화범 색출로 반란 모의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봉기일을 앞당겨 12월 20일에 모두 일어나기로 약속했다.³⁸⁾

반군의 집결지인 가산 다복동에는 일찍부터 사람이 모이고 있었다. 부호 이희저는 2~3년 전부터 다복동으로 이주한 뒤 금을 채취하여 번 돈으로 사람을 모았다.³⁹⁾ 반군의 수장 홍경래는 1811년 9월 가산 다복동 이희저 집으로 몸을 숨겼고 10월 이후로 반란에 참여하는 곽산, 선천, 영변, 개천, 박천, 재령, 황주, 중화, 평양, 자산, 순안, 태천, 정주, 가산 등지에서 모인 제장사들이 모였다.⁴⁰⁾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 모의를 위해 드나들었음에도 어떻게 관아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까?



〈지도 2〉 해동지도 가산관아 및 원수봉 위치



〈지도 3〉 일제 지도 원수봉 및 박천나루 위치

이는 가산 다복동의 지리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복동은 <지

38) 『진중일기』 1811년 12월 18일.

39)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0일.

40) 『관서평란록』 권1, 임신 1월 9일 묘시.

도 2,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산관아와 북쪽으로 15리 떨어져 있으면서 “동방 제일의 큰 시장”이라 불리는 박천나루에서 북쪽으로 6~7리 떨어진 ‘원수봉’ 밑에 있는 마을이었다. 가산과 박천을 가르는 경계선인 대정강 상류에 위치한 다복동 인근은 강가에 인가가 많고 닻새마다 장을 열어 교역할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다.⁴¹⁾ 바다 조수가 드나들어⁴²⁾ 배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청과 교역하는 의주대로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청천강 이북 여러 고을의 상인들이 나룻가에서 물화를 쌓아두고 상업행위를 하며 번성했다.⁴³⁾

다복동은 대정강 상류 인근에 위치하여 상업이 발달하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상대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정강을 통한 수상 물류 이동도 많기 때문에 물품을 옮기거나 필요한 것을 사기에도 편하면서도 동시에 후미진 곳이라 관의 눈길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다. 이 때문에 ‘금을 캔다’는 명분으로 많은 장정들이 모여도 좀 더 쉽게 의심을 피했을 것이다.⁴⁴⁾ 이는 다복동이 관아의 직접적인 감시와 군사적 통제력이 일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공간적·행정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였다. 반군은 대동관 방화 실패 이후 거사날을 12월 20일로 앞당겼다. 더 이상 관의 감시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반군은 각지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민심을 동요시키고 봉기를 위해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한 병란의 징후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

41) 『수사록』 권2, 유상수필 대정강 박천.

42) 미상, 『薊山紀程』, 1804년 3월 17일.

43) 朴思浩, 『心田稿』, 1828년 11월 11일; 『일성록』 189책, 순조 7년 8월 13일.

44) 이희저는 봉기 2~3년 전부터 다복동으로 이주하여 채금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봉기 2달 전인 10월에는 다복동에서 일제히 모임도 가졌다. 그럼에도 관에서는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지 않았다. 봉기 직전인 12월이 되어서야 다복동 이희저 집을 수상히 여기게 되었다(『진중일기』 임신 1월 12일; 4월 29일).

였다. 기민하게 반응한 몇몇 수령들은 반란 모의와 병란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응변의 방책을 도모했다.

가장 먼저 반란의 정황을 파악한 이는 반군의 근거지 가산 다복동과 가까운 박천군수 임성고였다. 박천군수는 17일 밤 3경(23~1시)에 읍민 강인(康麟)을 잡아들여 대정강 상류에 위치한 다복동에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있으며 창과 검, 말과 깃발 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명백한 무장봉기의 징후였기 때문에 박천군수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주에 주둔하고 있는 평안병사에게 바로 보고했다.⁴⁵⁾

18일 오전, 박천에서 서북쪽으로 약 160리 떨어진 선천에서도 반란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선천부사 김익순은 백성 10여 가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잡아다 심문하여 방영중군 유문제, 별장 최봉관이 내일 변란이 발생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중군 유문제는 이미 도망갔고 대신 별장 최봉관을 나문하자 철산과 광산에 패거리가 있다고 자백했다. 선천부사 김익순은 철산과 광산에 포교를 보내 이들을 체포하도록 명했다. 그 결과 철산에서는 정복일을 잡아왔고 광산에서는 김창시의 아버지와 박성신 등을 붙잡는 성과를 거두었다.⁴⁶⁾

이처럼 박천군수와 선천부사는 반란의 조짐을 사전에 파악했다. 하지만 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를 올리거나 체포조를 파견하는 등 대처에 그쳤을까? 이는 정보의 질적 차이와 정보원의 신뢰성 문제로 대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천군수 임성고가 얻은 첩보는 병란의 징후가 명확하게 포착되었지만 이를 진술한 이가 잡혀온 읍민이었다. 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천도 아닌 가산 영내에서 있는 사람을 박

45)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0일.

46) 『진중일기』 신미 12월 18·19일.

천군수 임성고가 독단으로 잡아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천군수 임성고는 권한이 있는 평안병사에게 보고를 올린 뒤 후속 조치를 기다린 것이다.

반면에 선천부사 김익순은 내일 변란이 발생한다는 소문을 퍼트리려 백성들을 선동한 별장 최봉관을 심문하여 반란 모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직 ‘내란 모의’일 뿐, ‘무장 봉기’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 소집이 아닌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조치였다. 또한 박천군수는 가산 방수장 소속 군현의 수령이었으나 선천부사는 밀부를 가진 방어사를 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선천부사 김익순이 타 군현에 거주하고 있는 반란 주모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사람을 바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평안병사는 박천군수가 보낸 장교로부터 해 뜰 무렵(7~8시)에 급보를 전달받았다. 반군 봉기의 정황을 전달받은 평안병사는 가산군에 비밀리에 관문을 발송하여 반군의 주요인물을 체포하도록 명을 내리고 장교와 군졸을 보내 정탐을 시켰다. 평안도 절도사 이해우는 읍민의 진술만으로 군사적인 행동이나 조정에 보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사람을 보내 정탐을 시키고 교차 검증을 위하여 가산 군에도 주동자 체포를 명하였다.⁴⁷⁾

가산군수 정시도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12월 18일 이희저의 집에 장교를 보내 포위할 것을 명했었다.⁴⁸⁾ 하지만 봉기를 앞두고 이미 무장한 병력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닌 소수의 체포조를 보내는 것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오히려 반군은 계획하고 있던 20일보다 2일 앞당겨 군사를 일으켜 붙잡힌 동료들을 구출한 뒤 관아로 향했다. 예정된 20일보다 2일 앞당

47)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0일.

48) 『진중일기』 신미 12월 19일; 임신 4월 29일.

긴 무장봉기는 평안도 관군이 첩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주모자를 잡아들이거나 병력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군의 '대원수' 홍경래는 기병 30~40기와 보병 150기를 거느리고 18일 저녁 가산관아로 남진했고 '부원수' 김사용도 무리들을 모아 꾀산에서 김창시의 아버지와 박성신 등을 체포하여 선천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신현(薪峴)에서 가로막아 죽인 뒤 18일 저녁에 꾀산 관아로 향했다.⁴⁹⁾

'대원수' 홍경래가 이끄는 약 200명의 반군이 가산관아로 향하고 있을 무렵, 가산군수 정시는 반군의 무장 봉기 정황을 인근 군현으로부터 공유받거나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다.⁵⁰⁾ 뒤늦게 수상한 동향을 포착하여 보낸 체포조는 오히려 무장 봉기만 앞당겼다. 그리고 홍경래 반군이 가산으로 향할 때 정시 주변에는 관아를 지키거나 그의 말을 따를 최소한의 인원조차 남지 않았다.

18일 초경(19~21시) 반군이 가산에 들어올 무렵 대응할 군사를 모으는데 실패한 정시는 적변이 발생한 사실을 병영에 알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관아 내에는 한 명의 관예도 있지 않았고 아노(衙奴)를 보내는 시도조차 반군과 내통하는 이들의 저지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⁵¹⁾ 정시는 3경(23~1) 즈음 홍경래가 지휘하는 남진군 기병 30~40기와 보병 150명을 상대로 아무도 없는 가산 관아에서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그의 아버지 정노와

49) 『진중일기』 신미 12월 18일.

50) 『진중일기』 신미 12월 20일. 박천군수는 18일 자정 전후에 무장한 반군의 정황을 포착한 뒤 이를 평안병영과 가산군에 비밀공문을 보냈다. 50리 거리인 평안병영에는 18일 오전에 공문이 전달되었다. 하지만 40리 거리인 가산관아에는 전달되지 못했다. 박천관아에서 가산관아로 가는 길 인근에 다복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51) 『순절록』 「叔哀日記」. “衙中欲報兵營發校捕賊 而無一官隸 故欲載書於兵營將賚送衙奴告變 而方裁焉之際 急唱金景順入告曰 今夜盜賊不入官府云云景順之言 蓋欲沮報營之札也.”

함께 반군에게 죽임을 당했다.⁵²⁾

부원수 김사용이 이끄는 북진군의 목표였던 곽산 역시 무방비 상태였다. 곽산군수 이영식은 18일 선천부사에게 곽산에 거주하는 전첨사 박성신과 진사 김창시, 한량 장홍익을 압송하라는 관문을 받았다. 이는 불순한 무리가 무장을 했으니 군사적인 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패거리들을 잡아들이라는 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곽산군수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부원수 김사용이 이끄는 50여 명의 반군에게 19일 4경(1~3시) 무렵 관아를 내주고 반군에 감금되었다.⁵³⁾

반군이 곽산 관아를 점령하던 19일 새벽 무렵, 남진군은 가산에서 남진하여 약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박천관아로 향했다. 박천군수 임성고는 적도가 가산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력을 모았다. 그러나 이미 읍민들이 흩어진 상태라 그나마 모을 수 있었던 관례 4, 5명에게 군기를 쥐어주고 와룡산에 올랐지만 적당이 쫓아오자 관례들도 모두 도망갔다. 임성고는 어쩔 수 없이 인신과 부절을 가지고 안주 평안병영으로 향하던 길에 모친이 적도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박천으로 발길을 돌렸다가 적도에게 붙잡혔다.⁵⁴⁾ 반군의 봉기 이전 정보를 수집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조치까지는 성공적이었으나 병력을 소집하지 못하면서 군사적인 대응에는 실패한 것이다.

한편 18일 저물녘 평안병사는 자신이 보낸 장교로부터 적괴가 내준 차첩 2장과 함께 적도의 가산 침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이를 확실한 정보로 인식하고 19일 유시(17~19)에 중앙에 장계를 올렸다.⁵⁵⁾ 장계는 22일 무렵 중앙에 도착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52) 김선주, 앞의 책, 228쪽.

53) 『진중일기』 순조 11년 12월 18일;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2일 병인.

54) 『일성록』 304책, 순조 12년 3월 8일.

55) 『진중일기』 순조 11년 12월 19일.

순조는 정주목사와 가산군수를 각별히 가려 차임하고 오늘 바로 말을 주어 내려보내라는 전교를 내렸다.⁵⁶⁾ 이와 같이 군현 → 감·병영 → 중앙조정까지 이어지는 상부로의 보고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군현 → 인접 군현이나 감·병영 → 군현으로의 정보 전파는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 박천군수 임성고가 가산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의 첩보를 가산군수 정시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8일 저물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장교를 통해 전달받은 평안병사도 이를 중앙에만 전달하고 가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정주에는 전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주목사는 뒤늦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주목사 이근주는 18일 초저녁 정주의 향장과 여러 향임이 수상한 정황을 몰래 아뢰자 의심가는 자를 붙잡아 변란에 대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정주목사는 반란 모의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포교를 보냈으나 체포에 실패하고 읍내 백성들은 동요하며 흩어졌다.⁵⁷⁾ 반란 모의를 사전에 알아내긴 했으나 주동자를 체포하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초기대응에는 실패한 것이다. 반군이 봉기했다는 소식은 무교 장재홍의 도움으로 반군에게서 탈출한 광산군수가 정주성에 도착한 19일 오시(11~13시)쯤에 전달했다. '모의'가 아닌 '봉기'가 확실하자 정주목사 이근주는 평안병영에 보고를 올리면서 관군을 소집했다.⁵⁸⁾

당시 정주관아는 정주성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성전을 바로 준비할 수 있었다. 정주성은 성가퀴가 둘레가 13리, 12228척으로

56) 『승정원일기』 2010책, 순조 11년 12월 22일 병인. 조선왕조실록에는 20일부터 기사가 나와 있다. 보고 내용과 안주에서 도성까지의 거리, 급보에 대한 대처가 승정원일기에 22일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평안병사의 최초보고는 19일 저녁에 출발하여 22일 무렵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57) 『진중일기』 순조 11년 12월 18일.

58) 『진중일기』 순조 11년 12월 18·19일.

약 5.6km 길이에 높이는 15척, 성가퀴는 1026곳으로 규모가 큰 성이었다.⁵⁹⁾ 지키기 위해선 약 5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지만⁶⁰⁾ 군사를 모을 좌수와 중군이 정주목사에게 항복을 권유했고 백성들도 흩어지면서 병사들이 제대로 집결하지 못했다. 해질 무렵 반군의 가짜 격문이 정주에 도착하고 김이대, 이정환이 다시 항복을 권하자 정주목사 이근주는 편지를 찢은 뒤 말을 타고 성을 나갔다.⁶¹⁾

수성전은 성곽 규모에 맞는 병력을 갖추 단단하게 결속한다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관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내용자까지 있을지 모른다면 성곽은 외부의 적을 차단하는 방어 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병력을 고립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정주목사 이근주는 성곽을 지킬 최소한의 병력도 갖추지 못하고 누가 적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주성을 지킬 수 없다고 느끼고 수성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90여 명에 불과한 반군이 19일 2경(21~23시) 정주성에 무혈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²⁾

비슷한 시기 선천부사 김익순은 12월 18일 철산에서 잡아온 이를 심문하는데 반군이 명성과 위세를 과장하자⁶³⁾ 겁을 먹고 20리

59) 둘로 쌓았다. 둘레는 13리(1리 = 460m, 5980m)로 12228척(포백척 46.8cm 5.6km)이고, 높이는 15척이다. 성가퀴는 1026곳, 장대 1곳, 성문 4곳, 수구문 2곳, 용성 2곳, 군막 91곳, 포루 21곳이다. 성안에 4개의 연못이 있다. 숙종 40년(1714)에 처음 쌓았다(『輿地圖書』 上).

60) 임경업은 백마산성 847첩을 지키는데 1첩당 5명으로 필요병력을 계산했다(『인조실록』 권 30, 인조 12년 9월 25일). 1026첩의 규모인 정주성을 지키기 위해선 5천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61) 정주목사는 20일 사시(9~11시)쯤 안주에 위치한 평안병영에 도착해서 변란 사실을 보고했다. 이전에 들어온 보고는 반란의 정황이거나 피난 온 이들의 진술, 장교를 파견해 얻은 정보로 수령의 직접 보고를 통해 변란이 발발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

62) 『진중일기』 신미 12월 20일; 『일성록』 299권, 순조 11년 12월 22일 병인. “昨日二更賊兵來迫定州城下.”

63) 김창시가 쓴 격문을 보면 항거하는 자는 절기 5천으로 밝아 무찔러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군세를 과장했다. 반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체를 전혀

밖에 위치한 검산성으로 들어갔다.⁶⁴⁾ 검산성의 둘레는 약 2.8km 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의 벽이 매우 험하여 1000명이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수성하기 좋은 성곽이었다.⁶⁵⁾ 하지만 정주성에서 선천 검산성까지의 거리는 약 90리로 하루 이틀이면 진격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서 수성전을 준비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갖추기 힘들었다.

그러나 내분으로 반군 수장 홍경래가 부상을 입으면서 북진군은 그의 치료와 전열을 정비하는 남진군과 상호보조를 맞추기 위해 4일 동안 정주에서 머무르다가 24일이 되어서야 선천으로 진군했다.⁶⁶⁾ 선천부사 김익순은 검산성에서 4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응자를 제거하지 못했다. 좌수 이을운, 독진중군 유도영, 관청향소 김응중, 고마 향소 방치은, 아전 박인철·황용주, 전임 수령의 병비(兵婢) 김득순 등이 모두 반군의 편에서 있었다.⁶⁷⁾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선천부사 김익순은 항전을 포기하고 24일 반군에게 투항서를 보냈다.⁶⁸⁾

철산부사 이장겸은 반군과 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운암산성에 입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산부사 이장겸도 내응자를 조기에 색출하지 못하고 중군 노계룡, 도감 김원대, 아전 문영록, 도감 오인록, 이방 안재형 등이 항복을 권유하자 선천부사보다 하루 빠른 23일 투항하면서 반군에게 관인과 병부를 바쳤다.⁶⁹⁾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과정은 상대에게 겁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정석중, 앞의 논문, 1972, 167~168쪽; 小田省吾, 同上書 38~39쪽).

64) 검산성은 관아의 북쪽 20리에 위치한 곳으로 내성의 둘레는 1025步, 높이는 2장이다(『진중일기』 신미 12월 18일, 20일; 『여지도서』 상).

65) 『승정원일기』 21책, 인조 6년 5월 26일.

66) 정석중, 1972, 앞의 논문, 172~173쪽.

67) 『진중일기』 1812년 3월 5일.

68) 『진중일기』 1811년 12월 23·24일.

69) 『순조실록』 권15, 순조 12년 1월 1일; 『일성록』 306책, 순조 12년 4월 4일; 『진중일기』 1811년 12월 23일.

반면에 용천부사 권수는 선천과 철산이 연달아 무너지는 상황에서 부하들이 항복하기를 권유했으나 따르지 않고 규모가 커서 지키기 힘든 용천읍성을 버리고 아병을 모집하여 용천부 북쪽 15리 떨어진 용골산성으로 들어가 지켰다.⁷⁰⁾ 7일간 성을 지켰으나 병사들이 남김없이 흩어지고 적이 용천부로 들어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용천부사 권수는 28일 단기로 겨우 인부를 보존하여 의주부로 피신했다.⁷¹⁾

정리하면 홍경래 반군은 거병하기 전에 시도했던 평양 대동관 방화가 성공했다면 관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평안도 군사·행정에 큰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이 조기에 진화되었고 평안감사가 방화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반군은 무장봉기가 사전에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사 날짜를 앞당겼다. 반군의 소굴이었던 다복동은 사람을 모으기 쉬우면서 가산과 박천의 경계에 위치한 후미진 곳으로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다

관할 경계를 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박천군수 임성고는 가산 다복동에 무장을 한 이들이 모여있다는 ‘병란(兵亂)’의 징후를 봉기 이전에 확보했음에도 즉각 조치를 하지 못하고 평안병사에게 보고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선천부사 김익순은 사전에 반란모의를 확인하고 체포조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나 ‘병란’의 확증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군사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고 12월 18일 가산과 곽산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반군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뒤 북진군은 청북지역 다수의 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한다. 성곽이 방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성곽의 둘레에 맞는 적정 수의 군민이 입보하고 내부적으로는 단결되어있어야 한다. 하

70) 용천읍성 13308척(약 6.2km), 용골산성 내성 370보(약 1km) 외성 1383보(약 3.8km) 용골산성의 험준한 형세는 천연적이지만 식수가 곤란하여 외성을 쌓았다.

71) 『研經齋全集』外集 권 41, 辛未記變; 『순조실록』 권15, 순조 12년 1월 9일.

지만 정주와 선천, 철산, 용천 모두 수성전에 나서기에 적정한 병력을 모으는데 실패하였고 내부의 적을 색출해내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독진이기 때문에 외부의 군사적인 지원도 없었다. 그 결과 청북군현의 수령들은 수성전을 펼치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도망치는 선택을 한 것이다.

4. 평안도 관군의 반격과 그 배경

부원수 김사용이 이끄는 북진군이 광산, 선천, 철산, 용천 등을 점령하는 동안 대원수 홍경래가 이끄는 남진군은 가산군과 박천군을 차례로 점령한 뒤 19일 밤 평안병영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박천 나루터에 주둔하며 영변과 안주 가운데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다. 반군은 영변을 먼저 공격하고 다음으로 평안병영이 위치한 안주까지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⁷²⁾

평안병영의 장교 김대린과 이인배는 반군 진영 내에서 안주를 먼저 급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원수 홍경래가 승낙하려고 했으나 모사 우군칙의 반대로 안주를 먼저 치는 계획은 묵살되었다. 그러자 김대린과 이인배는 난이 실패할 것이라 여기고 홍경래를 죽이려고 시도했다. 홍경래는 민첩하게 피하여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암살을 시도한 김대린과 이인배는 반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뒤 남진군은 다시 가산 다복동으로 돌아가 광산·정주에서 보낸 병력들을 기다려 힘을 합쳐 안주를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⁷³⁾

남진군이 내분으로 주춤할 무렵 안주와 영변에서는 반란이 일어

72) 『순조실록』 권15, 12년 1월 기축. “先攻寧邊，次攻安州爲定矣.”; 박천에서 영변, 안주까지 거리는 동일하게 50리이다(『해동지도』).

73) 『순조실록』 권14, 순조 11년 12월 23일.

났음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다. 가산에 적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19일 새벽에 안주성에 도착했다. 당시 안주성 내 백성들은 대부분 도망치고 교대병도 도착하지 않아 형세가 어지러웠다. 안주 목사 조종영은 군령을 세우기 위해 명령을 어긴 병사 3명의 목을 베고 북을 울려 병사들을 모았다.⁷⁴⁾ 평안병사도 군교를 출동시켜 군대를 모으고 5개 진영의 군병을 소집하였는데 숙천부사 작노대 60여 명만 21일 도착하였고 나머지 부대는 소식이 없었다.⁷⁵⁾ 모인 이들만으로 둘레 3043보(약 5.5km)에 달하는 성을 지키기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영변부사 오연상도 가산군에서 적변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일에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징발하여 수성전에 나섰다.⁷⁶⁾ 영변부사 오연상은 적변이 발생한 초기에 내통한 적을 1명 잡아들여 심문했다. 심문 결과 향장과 수임인 남명강·김우학이 반란 모의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남명강 등은 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적이 도착했다고 말하며 민심을 동요시켰다.⁷⁷⁾ 이는 북진군이 정주성, 검산성, 운암산성, 용골산성에 무혈입성한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영변의 경우 독진이라 유사시에 다른 군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정주, 선천, 철산, 용천과 달리 희천, 운산, 태천이 소속되어 유사시에 외부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영변부사 오연상 혼자 대응자인 남명강과 김우학 등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운산군수 한상목, 개천군수 임백관이 병사를 거느리고 도착하자 이에 힘을 얻어 반군에 대응하는 중군 남명강

74) 『진중일기』 신미 12월 19일. 안주읍성의 둘레는 3043보(약 5.5km)이다.

75) 『진중일기』 신미 12월 21일.

76)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2일.

77)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2일. “寧邊府使 吳淵常二十日所報內昨日聞 嘉山郡賊變調民守城.”; 『진중일기』 신미 12월 21일;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6일.

과 좌수 김우학의 목을 베며 성을 지킬 수 있었다.⁷⁸⁾

외부 군사적인 지원이 없었음에도 수성전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12월 21일 구성부사 조은석은 변란 소식을 듣고 수교(首校) 조영(趙永) 등에게 명령해 군사를 모아 수성에 나섰고 태천현에도 구성 소속 군병을 징발하도록 명을 내렸다.⁷⁹⁾ 구성읍성도 5천보가 넘는 둘레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선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⁸⁰⁾ 그러나 구성 소속 군병을 이끌고 와야 할 태천현감 유정양이 소속 진관 영변으로 향했기 때문에 구성은 다른 군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⁸¹⁾

그럼에도 구성부사 조은석은 동요하지 않고 25일 읍내에서 남쪽으로 불과 30리 떨어진 남창에서 200여 명의 반군이 근거지를 두고 격문을 보내 항복을 권유할 때 오히려 격문을 들고 온 병졸을 싸 죽이면서 수성의지를 굳게 하였다.⁸²⁾ 이후 반군의 숫자가 6~700명까지 늘어났으나 여타 청북 군현과 달리 구성 내에는 유력한 대응자가 없는 상황에서 구성부사 조은석이 내부를 결속시키면서 수성전에 나서자 반군은 구성 공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⁸³⁾

반군의 기세가 영변과 구성 공략에 실패하면서 꺾였지만 대원수 홍경래가 이끄는 남진군의 주요 승부처는 평안병영이 위치한 안주

78) 『진중일기』 신미 12월 21일. 『일성록』 299책, 순조 11년 12월 26일.

79) 『일성록』 300책, 순조 12년 1월 1일. “二十二日 調發軍兵 戒嚴守城 而泰川縣所在軍兵 亦使調發領赴矣 該縣監馳進兵營不爲赴徵云 而該府使二十四日以前所報皆見阻於賊路 … 今方守城云至於泰川縣軍兵即龜城所屬而該縣監 柳鼎養 近捨當赴之龜城 遠入不屬之寧邊大違軍制有關後弊爲先罷黜其罪狀令攸司稟處其代擇差給馬罔夜下送.”

80) 『만기요람』.

81) 『진중일기』 신미 12월 21일.

82) 『진중일기』 신미 12월 25일, 28일.

83) 『일성록』 300책, 순조 12년 1월 4일. “龜城府使 趙恩錫牒報內本府南倉屯聚之賊幾至六七百名本邑民丁亦多投入矣今初一日早朝忽地驚動一時潰散還向定州境.” 송림전투에서 반군이 패한 이후 뿔뿔이 흩어져 정주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였다. 18일 봉기 당시 200명이었던 남진군은 가산과 박천을 점령한 다음 21일쯤에는 4~500명으로 불어났다. 반면에 평안병영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군사를 징발하고자 했으나 소문을 듣고 흩어져 버린 것이 10집에 9집이나 되어 징발하는 것이 더디게 되었고 병영 관할 각 군에 병력을 모집하였더니 외부에서 온 병력은 숙천 부사가 보낸 노작대 60여 명이 전부였다. 게다가 반군이 봉기한지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들이 일시에 기왓장 깨지듯 우르르 무너졌다는 소식만 평안병영에 전달되고 있었다.⁸⁴⁾

그럼에도 추가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안주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평안병영이 위치한 안주는 평안도 내의 모든 군사정보가 최우선으로 취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은 독진으로 인접 고을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평안병영에는 반드시 보고했다. 반군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에 반군의 과장된 유언비어에 넘어갈 가능성이 낮았다.

반군은 봉기할 당시 서북인에 대한 차별과 세도정치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자연재해와 천문 변화의 빈번한 발생으로 나타나듯이 조선왕조의 천명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어리석게도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철기 5천으로 밟아 무찔러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격문을 안주·숙천·순안·평양 등에 보냈다.⁸⁵⁾ 평안병사는 격문의 내용이 인심을 선동하고 명성과 위세를 과장하는 것임을 파악했지만 선천부사 김익순과 철산부사 이장겸은 격문을 보고 겁먹어 항복의사를 밝혔다.⁸⁶⁾

그렇다면 평안병사는 왜 격문의 내용이 과장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평안병사는 21일 신시(15~17시)쯤에 박천에 사는

84) 『진중일기』 신미 12월 21·22일.

85) 정석중, 앞의 논문, 1972, 167~168쪽; 小田省吾, 同上書 38~39쪽.

86) 『진중일기』 신미 12월 21일·23·24일.

유성호·한귀봉 2명을 붙잡아 심문하여 반군의 병력의 숫자가 500명을 넘지 않고 말탄 자는 40명 정도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1일 1경(19~21)쯤에는 박천의 지인(知印) 이기영(李基榮)이 반군에게 구류된 임성고를 몰래 만나서 구원을 청하는 문건을 받아 평안병영에 전달했다. 그는 반군의 수장은 홍가라는 사실, 병력 숫자는 3~400명, 말 30여 필 정도 된다는 구체적인 병력 현황, 반군이 23일쯤 가산 다복동으로 향해가서 선천에서 보낸 병력과 합류하여 합동 훈련 후 안주를 공격할 것이라는 시점, 반군 진영 내에서 내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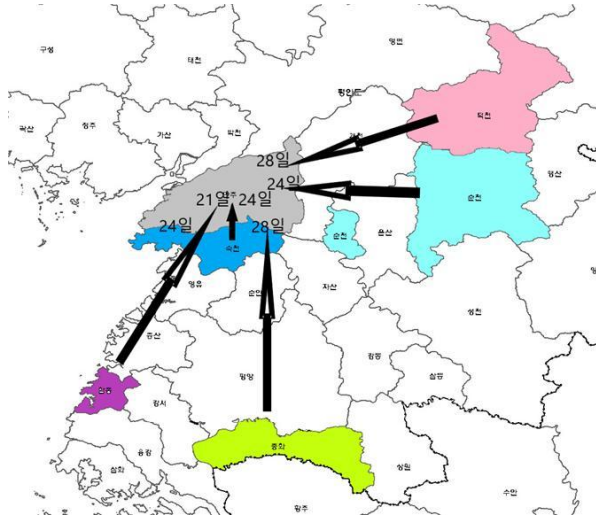
위 정보는 반군의 병력 규모를 처음으로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했다. 당시 상황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홍경래 난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게 되는 정주의 현인복도 병영 비장과 평소 주고받던 편지를 보여준 다음에야 비로소 안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현인복이 반군이 창궐한 경위, 여러 군현이 무너진 형세, 반군의 병력 숫자 등과 같은 첩보를 전달했으나 평안병영에서는 그를 신뢰하지 못해 꼼꼼히 묶어 감옥에 가두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지 않았다.⁸⁸⁾ 완전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정보는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기영은 박천군수가 직접 쓴 문서를 가지고 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다. 그렇기에 평안병사는 이를 장계를 통해 바로 중앙에 보고했다.⁸⁹⁾ 또한 반군의 규모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병력 숫자도 추산

87) 『진중일기』 신미 12월 21일.

88) 『진중일기』 신미 12월 23일. 현인복에 대한 보고는 1812년 1월 4일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다(일성록 1월 4일, 순조실록 1월 4일).

89) 평안병사는 21일 1경(19~21)에 이기영에게 보고를 받고 불과 2시간이 지난 해시(21~23)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 중앙에 장계를 올렸다.

하면서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다.



〈지도 4〉 5진영 병력 도착일자

반군이 23일 밤 3경(23~25) 안주병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송림으로 진영을 옮긴 다음 날(24일) 〈지도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숙천(전영장)과 순천(우영장), 함중(후영장)⁹⁰⁾의 군대가 안주에 도착했다. 평안병영도 반군과 싸울만한 병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28일에는 중화(중영장), 덕천(좌영장) 등의 고을에서도 병력이 합류해 총 2,000여 명이 모였다. 같은 날 평양에서는 평안감사 휘하에 있는 중군 이정회가 5초의 병력과 병영의 군사와 협력하여 출전하였다.⁹¹⁾

평안도 관군이 안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경래가 이끄는 남진군은 23일 밤 남진군 선봉장 홍충각의 선봉부대 300여 명이

90) 안주 - 숙천 60리(해동), 안주 - 순천 80리(동여도), 안주 - 함중 210리(해동).

91) 『순조실록』 권14, 순조 11년 12월 28일 임신.

박천 송림리에 먼저 도착하고 26일에야 도원수 홍경래 모사 우군 직이 군병 500여 명을 이끌고 박천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⁹²⁾ 홍경래가 이끄는 남진군은 송림에 있으면서 낮에는 모이놓고 진을 쳤고, 밤에는 마을 집에 숨었다. 또 층계 사다다리를 만들어 안주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⁹³⁾

평안병사 이해우는 병영 소속 다섯 진영의 군병을 차례로 징집하여 불러와 모인 병력이 2,000여 명이 되자 이 가운데 싸우기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9초를 편성한 뒤 평안우후 이해승·후영장 함중부사 윤옥렬·우영장 순천군수 오치수 등에게 맡겨 29일 꼭두새벽에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박천군 송림촌에 진을 치고 있는 적도들을 공격하도록 명을 내렸다.⁹⁴⁾

당시 반군이 주둔하고 있던 송림은 청천강과 10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발 100m정도의 낮은 산자락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12월 29일 평안도 관군이 송림의 적도를 격파하는데 병마우후 이해승이 2초를 이끌고 풍진을 건너 송림마을 입구에 진을 쳤고, 좌영장 함중부사 윤옥렬이 4초를 이끌고 우후의 진 서쪽에 진을 쳤으며, 우영장 순천군수 오치수가 4초를 이끌고 우후의 진 동쪽에 진을 쳤다. 3개 진영이 원형을 이루고 100보씩 거리를 두었다. 적도 또한 세 갈래로 병력을 나누어, 한 갈래는 우후의 진영의 뒤쪽을 둘러싸 나왔고, 한 갈래는 적현을 따라 둘러싸고 나왔으며, 한 갈래는 우후의 진영 앞으로 곧장 향하여 내달으며 달려들었다.⁹⁵⁾

92) 『관서평란록』 10, 김갑현공초.

『관서평란록』 1. 신미 12월 30일 해시.

93) 『진중일기』 순조 11년 12월 25일.

94) 『진중일기』 순조 11년 12월 28일.

95) <지도 5> 하단 산맥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적현이다. 그리고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있는 노란색으로 표기한 하천 부분이 평안도 관군이 송림전투 전에 머무른 풍진이다(『진중일기』 신미 12월 29일).



〈지도 5〉 박천 고지도(풍진, 적현 표기)

이때 평안병사 이해우는 백상루에 올라서서 관전하다가 관군의 중앙군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광산 전 군수 이영식을 후원장으로 삼아 군졸 천여 명을 이끌고 출격 봉기군의 후방을 치게 하였다. 이에 봉기군의 일기군은 꼬리를 거두고 후퇴하게 되었다. 선봉장 홍충각의 효용으로 관군의 선봉이 의기를 잃고 후퇴하려 하자, 관군의 좌영장 윤육열이 후퇴하는 군사를 목 베려하면서 독전하였다. 관군은 북치면서 기세를 돋우고, 활과 총을 난발하면서 봉기군 진영으로 진박하여 갔다. 봉기군의 기병 3, 4명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자 봉기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서너 번의 쌍방 접전 후에 봉기군이 무너졌다. 칼을 끌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산야로 흩어져 도망하는 봉기군을 쫓아 관군은 승세를 굳혔다. 영변과 구성에서 한차례 꺾인 홍경래 반군의 예봉이 박천 송림전투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후 전황이 기울면서 관군이 대승을 거두었고 반군은 수백 명의 병력을 잃고 난 다음 정주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⁹⁶⁾

96) 『순조실록』 권15, 순조 12년 1월 1일.

지금까지 송림전투의 패인은 주로 반군의 전술적 판단 오류에서 찾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왔다. 첫 번째, 비등한 병력으로 평야에서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겨울이라 은폐할 곳 없는 평야에서의 전투는 숙련된 관군의 표적이 되었을 뿐 대등한 전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 봉기군의 3기병이 중앙돌파에만 전력하여 3기병 중 2기병이 관군의 중앙을 대적하고 일기병이 관군의 우익군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어, 적어도 관군의 좌익 일기군에 대하여는 방치하는 오류를 범했다. 세 번째, 봉기군의 지휘부는 평야에 있었으므로 작전지휘를 국지적인 면에서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관군의 경우 병사 이해우가 백상루에서 양군의 전투를 조감하면서 작전을 지휘하며 응원군을 보낼 수 있었던 점은 직접 평야에서 작전을 국지적인 면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는 봉기군의 지휘부에 비해 우위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⁹⁷⁾

하지만 실제 송림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보면 주변에 낮은 언덕이 있는 곳으로 평야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무모한 중앙돌파에 주력한 점을 비판하였는데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동기도 부족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계림라전을 펼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평안병사가 백상루에서 양군의 전투를 조감하면서 작전을 지휘, 응원군을 보낸 것을 두고 높이 평가하였는데 송림전투가 벌어진 주변 지형을 볼 때 해발고도 30m정도 되는 백상루 위에서 4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전투를 조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분석하여 실제 송림전투의 승전 원인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안도 관군이 송림에서 남진하는 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무렵 중앙에서 보낸 순무영 선발대는 27일 도성에서 출발해서 29

97) 정석중, 1972, 「洪景來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7, 552~553쪽.

일 아침 장단을 지나 저녁 무렵 개성에 도착했다.⁹⁸⁾ 순무영 선발대는 1812년(순조 12) 1월 11일이 되어서야 정주성에 도착하여 평안도 관군과 합류할 수 있었다. 중앙군이 도착한 시점은 이미 평안도 관군이 반군의 북진군과 남진군을 모두 정주성으로 몰아넣어 전황이 관군에게 완전히 기운 때였다.

정리하면 홍경래 반군의 남진군은 박천 주둔 중 안주·영변 선공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암살 미수로 전열이 이완되었다. 그 사이 안주·영변·구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성 태세를 갖추었다. 특히 안주는 각 군현의 정보가 가장 빠르게 모이는 평안병영 소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첩보를 통해 반군의 과장된 격문과 유언비어를 배제하고 병력을 단계적으로 집결시켰다. 그 결과 12월 29일 송림에서 홍경래 반군의 예봉을 결정적으로 꺾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남진군 내부 분열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관군의 정보 우위와 병력 동원 체계, 그리고 수성에 성공한 영변·구성의 연쇄적 방어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였다. 중앙의 순무영 선발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전황은 이미 평안도 관군에게 크게 기울어 있었다.

98) 『서정일기』 신미 12월 28·29일.

5. 맺음말

본고는 1811년 홍경래 난 발발 초기 평안도 관군이 반군을 신속히 진압하지 못한 원인을 군사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반란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주도층의 성격, 민중운동의 성격 규명에 집중해 온 데 비해, 본고는 평안도 군사지휘체제와 군현 단위의 실제 군사적 대응을 중심으로 초기 진압 실패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평안도는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오는 외적을 막기 위하여 변방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독진체제, 내지는 제진으로 집결하여 응전할 수 있는 진관체제라는 중층적인 방어체제를 갖추었다. 외적의 침공 목적에 따라 압록강변 군현을 독진을 운영하거나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청천강 이북 의주대로에 위치한 군현을 독진으로 운영하는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군사지휘체제를 바꾸어가며 운용하였다.

그러나 외적을 막기 위한 방어체제가 내란을 막기 위한 최선은 아니었다. 변경이 아닌 내지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단기간에 확산되는 무장 봉기에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홍경래 난 초기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관군이 연이어 붕괴된 것은 수령 개인의 무능보다는, 독진 체제 하에서 군현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고, 병력 동원과 지휘 통합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였다. 군현별 사례 분석을 통해 본고는 초기 대응의 성패가 다층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천강 이북 군현에서 나타난 실패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못한 결과였으며, 반대로 영변과 구성에서의 수성 성공은 내부 결속, 외부 지원과 같은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 가능했다.

특히 평안병영이 위치한 안주는 평안도 관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로 각 군현의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외적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반군의 과장된 격문과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고, 신뢰 가능한 첩보를 통해 병력을 단계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송림전투에서 남진군의 예봉을 꺾으며 전황을 결정적으로 반전시켰고, 중앙에서 파견된 순무영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전세는 평안도 관군이 쥐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홍경래 난 반군에게 초기 청천강 이북 7개 군현이 연달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군사적 무능’이 아닌 북방 외적을 막기 위하여 갖춘 군사지휘체계가 내란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사사적 관점에서 ‘홍경래 난’ 진압과정에서 드러나는 평안도 방어체제와 군사지휘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19세기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홍경래 난’ 진압과정에서 평안도 관군과 의병이 어떠한 군사지휘체계를 갖추어 북진군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중앙군과 평안도 관군이 어떻게 하나의 부대로 정주성 공성전에 임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여지도서』, 『해동지도』, 『만기요람』, 『진중일기』, 『서정일기』, 『관서평란록』, 『순절록』, 『수사록』, 『수와일기』, 『薊山紀程』, 『心田稿』, 『研經齋全集』

2. 저서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 난』, 푸른역사, 2020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3. 논문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韓國文化』 34, 2004
 강석화,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軍史』 124, 2022
 고동환, 1994, 「1811-12년 평안도 농민전쟁」, 『한국사』 10, 한길사
 노영구,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점방어체계」, 『韓國文化』 34, 2004
 서태원,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 『사학연구』 63, 2001
 오수창, 「'홍경래 난'의 주도세력과 농민」,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이왕무, 「홍경래 난의 진압과정」, 『한국군사사』, 육군본부, 2012
 이철성, 「17세기 평안도 강변7읍의 방어체제」, 『한국사학보』 13, 2002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정석중, 「洪景來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7, 1972
 정석중, 「洪景來亂과 內應勢力」, 『嶠南史學』 1, 1985
 홍희유,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과 그 성격」,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이조편)』, 과학원 출판사, 1963
 鶴園裕,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加層 -그 中層의 性格을 중심으로-」 『傳統時代

의 民衆運動』上, 1981

玄相允, 〈洪景來傳〉, 《東亞日報》1932년 7월

小田省吾, 『辛未洪景來亂の研究』, 小田先生頌壽紀念會, 1934

小田省吾, 1932, 1933 「洪景來亂の概略とその動機に就いて研究」, 『青丘學叢』

8 · 11

〈Abstract〉

The Outbreak of the 1811 Hong Gyeong-nae Rebellion and the Initial Response of Pyeongan Provincial Forces

Park, Kee-hoon

This article reexamines, from a military-historical perspective, why government forces failed to suppress the Hong Gyeong-nae Rebellion quickly in its initial stage in 1811.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revolt and the character of its leadership,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causes of early failure by examining the command system of Pyeongan Province and the military responses of individual districts.

In late Joseon, Pyeongan Province operated a decentralized defense system centered on independent garrisons (*dokjin*). This system worked well against external invasions when danger was recognized in advance, but revealed serious limits when faced with a sudden internal uprising. The rapid collapse of government forces north of the Cheongcheon River resulted largely from weak information sharing and lack of mutual support among districts.

By comparing the cases of Gasan, Kwaksan, Jeongju, Seoncheon, Cheolsan, and Yongcheon, this study evaluates responses using five criteria: early detection, decisions of magistrates, troop mobilization, internal collaboration, and outcomes. The initial failures were caused not by individual

incompetence but by structural constraints, unreliable intelligence, limits on mobilization, and collaborators.

Anju, the provincial headquarters, functioned as an information hub. Using reliable intelligence, it avoided exaggerated rebel proclamations and gradually concentrated troops. Together with successful defenses in Yeongbyeon and Guseong, this allowed provincial forces to gain the upper hand before central troops arrived and force the rebels into Jeongju Fortress.

Keywords : Hong Gyeong-nae Rebellion, Pyeongan Provincial Government Forces, Northern Pyeongan Region (Cheongbuk Area), Military Command System, Dokjin System (Independent Garrison System), Jingan System (Garrison-District System), Military Intelligence